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번역 대상지로 떠오른 동아시아 한·중·일·대만 23명 출판인 및 관계자 한자리에

제9회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이 '2014 파주북소리'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제출판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출판인, 편집자, 번역자, 교수 등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번역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의 지식공동체 기반 구축을 모색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국제출판포럼은 첫째 날, 쑨거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세션1 '번역으로 만나본 동아시아' 둘째 날, 세션2 '번역의 창 - 그 안과 밖', 세션3 '동아시아 상호번역의 상황과 과제'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번역, 단순히 문장 옮기는 것 아닌 창조하는 것”

중국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의 쑨거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번역은 원문을 전제로 한 지식 창조의 형식”이라고 말하면서 “번역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문장의 뜻을 옮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계통이 다른 두 언어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문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문장은 반드시 전후 문맥에 따라 특별한 뜻을 내포하고 있고, 한 언어문화의 맥락속에 만들어진 독서행위는 반드시 문장이 전달할 수 없는 언어 외적인 분위기와 미묘한 뜻의 이해를 동반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쑨거 교수는 또 “그 어떤 문화도 자족적이지 않으며, 인류문화에 있어서 국가별 문화는 단지 구성 성분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번역은 두 문화가 각기 불완전함을 직시하는 동시에 완전성 추구라는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미완’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대립하기에 오히려 하나 이룬다”

강성민 글항아리 대표는 ‘동아시아 인문교양서의 번역’ 주제 발표에서 “동아시아 3국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차이도 존재한다. 중국의 책은 자아가 강해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며, 책의 전체 열개도 시원시원하게 잔다.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만 단순해 보이기도 한다. 반면 일본의 책은 매우 섬세해 빠져 나갈 틈이 없고, 살피지 않은 가능성이 없을 정도다. 최근에는 일본의 논픽션물을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논픽션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번역가 윤여일 씨는 ‘번역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 주제발표에서 “동아시아는 각 사회의 내부 시선만으로는 형성되지 않는다. 서로간의 시선들이 교차할 때 비로소 열리는 공간이다. 특히 동아시아는 무거운 역사 기억, 영토 문제, 근대화를 향한 각축 등으로 인해 각 사회 사이에는 적대성이 깔려 있다”라고 전제한 뒤 “대립하면서도 대립하기에 오히려 하나를 이루는 이곳에서 연대를 이뤄내려면 사상적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